

‘글로벌 관광 르네상스’ 출발점 만들자

광주·전남
매력을 알리기
(7·완) 제언-김영선 전남연구원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문화와 예술을 시작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이끈 르네상스(Renaissance). 지난 15세기 인구 10만 도시 피렌체를 중심으로 유럽, 나아가 전 세계적 영향을 가져다줬다. 유라시아 대륙 동편 끝 대한민국, 그곳에서도 서남쪽 끝자락인 전남이 다시금 세계 속의 관광 르네상스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새로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목표인 방한객 3000만 시대의 성패가 세계적 콘텐츠로 발돋움할 전남의 매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굳은 확신에서다.

삶의 터전이자 무한한 생명자원을 품은 바다, 그 위에 보석처럼 펼쳐진 섬, 빼어난 절경을 지닌 산, 그리고 문명 태동과 함께 전통을 머금은 강 등 천혜의 자연과 수천 년 역사를 품은 전남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이 고스란히 새겨진 기억의 터전이자, 미래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가갈 가능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했던 지역 콘텐츠들은 고유의 매력

발길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해졌다.

이중 최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글로벌 관광특구는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더해 전남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각 지역이 지닌 여건과 보유잠재력을 기반으로, 광양~여수~순천~고흥~보성 등을 아우르는 동부권 해양관광벨트, 목포~신안~무안~함평~영광 등으로 연결되는 서부권 생태관광벨트, 영암~해남~진도~완도~보성~장흥 등으로 이어지는 남해권 역사·문화관광벨트, 장성~담양~곡성~구례 등이 함께하는 체류휴양벨트 등 유사하게 지닌 특성 속에서도 권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어느 한 곳도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자원과 전통 식문화에 더해, 사계절 펼쳐지는 지역축제와 공연 등을 결합한 복합관광 콘텐츠는 전남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지는 K-컬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지·자연경관·역사유적 등 우월적 콘텐츠 보유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보강...접근성 개선 필수

정부 기조 대응...정책 뒷받침·주민 자발적 참여도

을 품고 있어 경쟁력을 갖췄다. 온화한 날씨는 각종 운동팀의 전지훈련지로 손꼽히고 있고, 바다와 강에 들어선 오색 분수는 매력적인 빛의 예술을, 전국 최고의 순천만국가정원은 할랑에 목마른 이들의 성지로, 국제수목비엔날레와 남도미식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메가이벤트, 축제·행사·마이스(MICE)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얼굴과 이야기를 지닌 전남의 섬에 주목할 수 있겠다. 청정 해양 환경을 간직한 채 고요한 섬을 제공하는 완도 여서도는 세계적인 차유·웰니스 관광지로, 역사와 자부심을 지닌 완도 소안도는 독립운동을 넘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낸 콘텐츠를 지녔다.

근대사의 아픔을 딛고 음악과 축제, 해양레저가 어우러져 섬강스의 최적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여수 거문도, 장엄한 해안 절경 및 생태자원과 해상풍력의 전초기지로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영광 안마도 등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각기 다른 매력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때마침 어느 정부보다 정책의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새정부와 그간 쉬지 않고 경쟁력을 키워온 전남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묶어내고, 또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또 전남의 청정자원을 활용해 이미 조성한 해양치유 인프라와 해수, 해조류를 활용한 체류프로그램 등은 차유관광의 거점이자 웰니스 관광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에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김대중 정신'으로 대표되는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성을 토대로, 보다 규모화된 글로벌 이벤트로 확대해 세계적 화두를 이끄는 장이자 방문거점으로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관광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교통·언어·결제·숙박·정보의 불편을 AI 기반 다국어 안내 기능이 결합된 전남형 K-관광 슈퍼앱 등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관광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최근 개통된 남해안철도 보성~임성리 구간은 전남서남권 접근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남해안남부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곧 완공될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장에서 열린 아세안 파빌리온 개막식



영광스포티움 축구공원구장



국제수목비엔날레



목포 해상W호

성은 전남을 수도권과 2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시키며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재개발이 다소 미뤄지고 있는 무안 국제공항 또한 빈틈없는 보완을 통해 재개발함으로써 세계인의 발걸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이자 거점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상교통 활용이 더해져야 한다. 목포와 여수를 중심으로 한 국제크루즈 노선 확대와 더불어,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안 크루즈 활성화 및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도입 등은 전남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고 섬 관광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핵심 수단 이 될 것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축제, 미식, 해양레저 등과 결합해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철도와 항공, 해상 교통망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전남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지로 응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열거하기에도 못한 다양한 매력 있는 특장점이 어우러진다면 전남은 더 이상 변방구석의 숨겨진 보물고개 아니라, 세계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K-컬처 관광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남의 바다와 산, 섬과 마을은 이미 그 자체로 차별화된 매력을 지니고 있어, 정책적 뒷받침과 창의적 발상 및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가 더해진다면, 전남은 한국을 넘어 세계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관광객 1명은 평균 1500달러의 지출을, 관광소비 1억원은 약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최근 분석결과에서 보듯, 관광산업은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며, 나아가 지역성장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 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전남 관광은 단순한 경제효과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자존을 불어넣는 미래산업으로 글로벌 관광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2030년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 결국 성패는 지역이 얼마나 독창적인 매력을 세계적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은 이미 그 해답을 품고 있다. 전남을 이루는 사람, 공간, 자원 모두가 그 자체로 보물이며, 이제는 이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선보일 차례다. "매력을 파는 전남"은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글로벌 관광 르네상스를 여는 출발점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관광객들